



조정중재사례 소개

명예훼손 사례

■ 미성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보도, 기사삭제와 사과문 게재 및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A언론사는 집단폭행을 당한 초등학교 가족이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에게 진술서 작성을 강요했고 피해 학생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신청인은 기사가 사실과 다르고 본인의 신상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원 기사의 삭제와 함께 사과문을 게재하고, 신청인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져 조정이 성립됐다.

초상권 침해 사례

■ 당사자에게 촬영 동의를 받지 않은 보도, 손해배상으로 직권조정결정

B언론사는 환경미화원 선발 실기시험에 관한 뉴스를 전하면서 시험에 응시한 신청인의 초상을 촬영, 보도했다.

신청인은 해당 언론사가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담당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해 결정이 확정됐다.



독자마당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지난 호 모든 내용에서 감동과 신선한 충격을 받았지만 그중 인터뷰 ‘나눔과 봉사가 따뜻한 사회를 만듭니다’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사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고 계신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제훈 상임대표님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올 겨울이 유난히 추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저 역시 이제훈 대표님의 봉사정신을 본받아서 남을 배려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리라 다짐해 봅니다. (전기홍)
- 시기가 시기인지라 ‘대선보도 심의 중간점검’에 관심이 갔습니다.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서 공정성 및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도 행태가 잘못된 판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언론이 앞장서서 선거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고쳐져야 함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꾸준히 다루어야 할 소재라고 여기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도 병행되면 좋겠습니다. (석순자)
- ‘이용재의 잡문 노트’를 제일 재밌게 읽었어요. 외국에서는 슈퍼만 가도 그득그득 있단 예그노그를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 아쉽네요. 꼭 한번 맛보고 싶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처럼 눈도 펄펄 왔던 추운 날 참 흥미로운 기사였습니다. (이진희)